

[ 바 둑 ]

박정상 '후지쓰배' 저주?

우승 이후 '반집패'만 5번

최근 후지쓰배 정상에 올랐던 박정상 9단이 우승 이후 5차례나 쓰러진 반집패를 당하는 등 '반집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일 제19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의 저우허양 9단을 꺾고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했던 박 9단. 그러나 이후 1승5패, 그것도 다섯번 모두 반집패를 당하며 예상치 못한 슬럼프에 빠졌다.

박 9단은 지난 10일 KBS바둑왕전 본선에서 고근태 5단에게 반집패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한국바둑리그에서 이영구 5단에게 또 뼈아픈 반집패를 기록했다.

4일 뒤인 18일 GS칼텍스배에서 이세돌 9단에게 역시 반집패로 3연속 반집패를 당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박정상이 '후지쓰배의 저주'에라도 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농심신라면배 예선 4차전에서 김동희에게 승리해 저주의 사슬을 끊는 듯했던 박정상은 21일 5차전에서 후배 진동규 3단에게 다시 반집패로 져 여전히 '반집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박정상 9단의 부진을 달리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바둑해설자라도 유명한 김성룡 9단은 "반집패를 당한 대부분의 바둑이 내용면에서 좋지 않았다. 크게 질 바둑을 반집 차이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연이은 반집패는 박9단의 바둑이 최근 뒷심이 강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박정상 9단은 지난 23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벌어진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에서 광주 Kixx팀 선수로 출전해 류재형 7단(매일유업)에게 불계승을 거두고 반집패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연필뉴스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한국바둑 '4대 천왕' 창 VS 방패 누가 센가

바둑팬들에게 친숙한 '4대 천왕'은 현재 우리나라 바둑계를 이끌고 있는 최강 4인을 말한다.

이창호-이세돌-최철한-박영훈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곧 국내 바둑랭킹 1위부터 4위까지 순위이기도 하다. 국내 9개 메이저 기전의 타이틀 중 8개가 이들 4인의 손에 쥐여져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4인 간의 대결 구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외형적 성적표만으로 놓고 볼 때 나머지 3인은 이창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비공식 기전을 포함해 통산 131회 우승을 달성했다. 109회가 국내기전이고 국제대회에서는 22회 우승했다.

18승17패로 간발의 우세를 지키고 있다.

이창호를 제외한 3인의 전성은 보다 치열한 편이다. 이세돌은 최철한에게 10승8패로, 박영훈에게는 8승7패로 앞서 3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철한과 박영훈은 오히려 랭킹 4위인 박영훈이 10승9패로 최철한에 앞서고 있다. 3인의 불교 물리는 접전은 올 여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71%가 넘는 고승률로 승률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세돌이지만 이창호에게는 1승1패, 최철한에게는 오히려 2승4패로 밀렸다. 박영훈과는 아직 공식대국에서 만나지 않았다. 박영훈은 올해 최철한과 두 차례 만나 모두 이겨 '최철한 해법'을 찾은 느낌조차 주고 있다.

결국 드러난 성적만으로 비교해볼 때 4대 천왕 간에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됐다.

기풍 상으로 본다면 실리와 두터움, 계산을 앞세운 이창호와와 천부적 감각을 바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치열한 접근전과 승부근성을 능기로 삼는 이세돌류의 정면대결로 볼 수도 있다. 박영훈은 이창호를 계속하며, 최철한은 전형적인 이세돌류의 추종자이다.

물과 불, 창과 방패의 오랜 싸움을 연상케 하는 한국바둑 4대 천왕의 불꽃튀는 내전. 그들이 잇기에 팬들은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군 바둑협회 출범

8개 기우회 주축... 회장 황호용씨

강진군 바둑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강진군 바둑협회가 최근 강진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전남 바둑협회 영등민 회장을 비롯 바둑 동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가졌다. 초대회장은 전남도의원 황호용 씨가 맡게됐다.

선진·마라·방영·작천면 등 강진군 8개 기우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강진 바둑협회는 국내 주요기전 강진 유치, 동호인 대항전 개최 등 바둑 보급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9기 국수전 도전 제2국 개최를 계기로 출범하게 됐다. 지역 바둑인들은 이 대회 유치를 발판으로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 바둑을 활성화하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황호용 회장은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바둑 보급을 통해 강진 바둑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후진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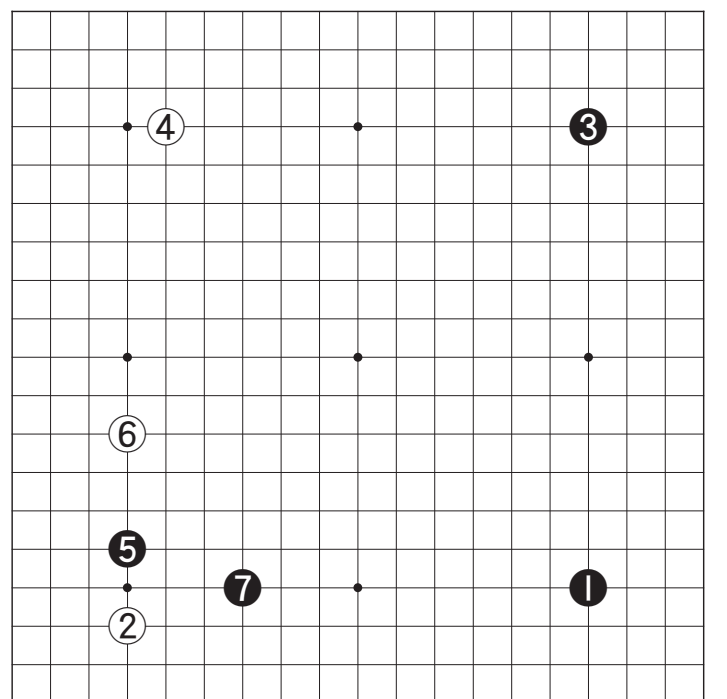


'첫 출전의 강자들'

3회전 제1보(1~7)

白 김철5단 (PCA생명)

黑 정장효5단 (포스코)



이 바둑은 3회전의 또 다른 한판으로 포스코의 정장효 5단과 PCA생명의 김철 5단의 대결이다.

미치지 않으면 어떤 취미든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3회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단 상당한 실력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며 한 때는 바둑공부에 열중했던 시절들이 있어야만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정장효 5단도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포스코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자라는 동료들의 전언이며 김철 5단은 이 지역 대학바둑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바둑동아리 '오로화' 출신으로 사립상오로회의 '큰형' 역할을 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두 대국자 모두 본 직장대회에는 첫 출전으로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듯 하며 역시 예상대로 1,2회전을 파죽지세로 통과하여 중요한 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3회전의 판전에서 맞닥뜨렸다.

둘을 가린 결과 정 5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되었다. 정 5단이 양화점으로 고전적인 포석을 들고 나온 반면 김 5단은 소목과 요즘 보기 드문 고목으로 약간의 변칙으로 대항한다.

흑 7이 유명한 '요도성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SK telecom, KT&G, 전남본부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featuring movies like 'The Man in Black' and 'The Italian Job'.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Eulji Gongin', 'LC Tower', 'Hyundai Gongin', '21st Century Real Estate', and 'Daehan Real Estate'.